

요한복음 11장 28-40절 말씀

-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
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
-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
-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
-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
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
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
-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
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
-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
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 이르시되
그를 어디 두었느냐?
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
-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
-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
-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
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
-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
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
- 39 예수께서 이르시되
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
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
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
- 40 예수께서 이르시되
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